

siloxane)를 이용하여 환부의 negative mould를 만든 다음 이로부터 석고를 이용하여 환부의 positive mould를 제작한다. 이 positive mould 위에 환부를 정확히 표시하여 필요한 수효 만큼의 brachytherapy-용 catheter를 환부의 위치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면서 dental acryl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negative mould를 만든다. Catheter가 장착된 brachytherapy-용 mould를 환자에 적용시킨 상태에서 방사선치료 계획용 orthogonal X-ray film을 촬영한 다음 이로부터 방사선 선량 분포 계획을 수립한 다음 고선량을 근접조사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결과 및 결론 : 두례에서 모두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종양의 크기 감소를 관찰하였으며, 환자의 연령, 전신 상태 그리고 재발된 종양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술, 외부 조사 또는 자립 방사선치료(Implant Brachytherapy) 등을 이용하는 재치료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Mould Brachytherapy는 비침습적이며 외래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된다고 판단된다.

14

Weekly Paclitaxel with Simultaneous Radiation in Locally Advanced Inoperable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Head and Neck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내과학교실,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가톨릭암센터

이복근 · 이명아 · 김용재 · 홍영선 · 김훈교
이경식 · 김동집 · 김연실* · 정수미* · 윤세철*
선동일** · 김민식** · 조승호** · 서병도**

서 론 : 재발성 두경부암의 생존은 종종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 더욱이 통증과 더불어 전신 상태가 나쁘며 이미 수술, 과다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한 상태여서 새로운 신약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Paclitaxel은 두경부 종양에서 방사선 자극제(Radiosensitizer)로 작용한다. 우리는 국한 진행성, 수술이 불가능한 두경부암의 한 예에서 paclitaxel과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여 전신 상태를 떨어뜨리지 않고 종양의 현저한 감소가 있어 이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57세 여자로 1993년 7월 사골동암(4기, 편평상피암, 3 of performance status)으로 진단되어 3차례 유도항암 요법(cisplatin 100mg/m² 동맥투여 1일, 5-FU 1000mg/m² 정맥 투여 5일, 매 3주)을 받았다. 그이후, 수술(상악동 전적출술)과 방사선 치료(원발 부위 : 5940cGy, 우경부 : 5040cGy)를 받고 완전 판해를 이루었다. 그리고 1995년 3월 다시 재발하여 3차례의 동시 항암 방사선치료[약물 요법(cisplatin : 20mg/m² 정맥 투여 5일, 매 3주), 방사선 치료 (부비동 : 3060cGy, 우경부 : 3000cGy)]를 받고 부분 판해를 이루었다. 1996년 6월 그녀는 우안구통과 우안 주변의 큰 종괴를 주소로 재발한 상태로 내원하여 Paclitaxel과 방사선 치료를 8회 시행(부비동 : 4140cGy)하였다. Paclitaxel을 매주 한 번 50mg/m², 3시간 정맥 주사와 함께 steroids, H-1과 H-2 blockers로 전처치를 하였다. 방사선 치료는 주당 5일 매일 180cGy으로 치료하다가 방사선 투여량이 많아 중간에 감량하여 치료를 하였다. 4 cycles 후, 전신 상태를 떨어뜨리지 않고 종양의 현저한 감소가 있었으며 증상의 호전도 있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4차례 더 paclitaxel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혈액학적 부작용은 경한 백혈구감소증(WHO^oII)이 있었으며 비혈액학적 부작용은 전신 근육통(Generalized myalgia)이 있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paclitaxel과 방사선 치료의 병합요법은 국한 진행성, 수술이 불가능한 두경부암의 한 예에서 부작용이 적으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치료법으로 사료된다.